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十二頁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溶逸(?)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SOONG COLLEGE LIBRARY 圖書館藏書)

社說

教員優遇案

同時에 素質도 向上하라

一

明年度 學務局要求 豫算案中에 敎員優遇案이란것이 잇다 敎員優遇案이란것은 肺結核으로 因하야 辭任或은 休職에도 給與를 주어 그生活을 保障케 하는것이다。貧弱한 朝鮮豫算에 因病辭職敎員에게까지 給與를 주어 生活을 保障한다는것은 分에 넘치는 案이라고 할수도 잇겟스나 아무리 貧弱한 朝鮮豫算이라 할지라도 이런 境遇의 支出은 堪耐할만한 支出이라 하겟다。

二

小中學敎員은 어데를 莫論하고 質朴한 地位를 가젓다 敎員은 選擧 被選擧權을 가지지못하고 敎壇에서 政治를 論할 權利를 가지지 못햇다 그뿐아니라 私的生活에 잇서서는 恒常 學理研究와 自身人格의 薰陶를 養成하기爲하야 生活手段을 講究할 機會를 적게 가젓다。그러므로 一旦 敎員의 生活을 休止한다면 그날부터 生活轉換의 길을 어들수업고 따라 生活難에 直面하게된다。特히 敎員이 肺結核에 罹하면 强制的으로 休職되게되엇는데 休職은 되고 生活方途는 업서진다면 그이에게는 事實上 死刑을 宣言하는것과 마찬가지다。이런 敎員을위하야 給與制度를 設置함은 適宜한 處置다。

三

어떤 사람은 말하리라、朝鮮의 普校敎員은 中學五年만 마치고、師範一年만 치루면 四、五十圓의 月給을 맛고、夏休、冬休에는 二個月이나 休暇를 어드며、政治的으로 離利업기는 마찬가지니 敎員만을 特히 優待할 必要는 업스리라고。이말은 全然 理致업는것은 아니다。專門、大學을 나오고도 곳生活難에 直面하고、다른給料生活者라야 官吏가 恩給이잇고、有力한 會社가 아닌以上 退職金制度도 업는데 中學四、五年과 師範一年을 마친이나 或은 第三種試驗에 入格한이가 여러가지 優待를 맛는것은 一見 不公平하다。그러나 冷靜히 생각하면 一方이 冷待를 맛는다고 敎員도 반듯이 冷待를 바둘 理由는 成立되지안는다。敎員으로서는 當然히 바들 優遇이니 바더야 올코、其他給料生活者도 現在以上 優遇를 바더야겟다는것을 생각하면、그뿐이 아니다。그러므로 他의 不運을 批難할지언정 此의 幸運을 決코 猜忌할것은 업다 할것이다。

四

近來 敎員의 素質이 不良하야 兒童의 毆打者가 생기고、그러치안트래도 德育上、智育上、可히 師表되지못할만한 敎員이 만흔것은 不蔽할 事實이다。어떤敎員은 致富에 營營하야 그本業과 副業을 區別치 못할 程度의 人도 한둘이 아니다。그러다고 이것을 批難할지언정 그 優遇制度를 反對할 必要는 업다。오즉 吾人은 屢次로 敎員 特히 普校敎員의 素質改善及 向上을 主張햇거니와、이機會에 또다시 敎員素質의 向上을 一言치 안흘수업다。왜그러냐하면 待遇만 優良해지고 素質은 改善되지 안는다면 一般의 批難은 倍加될것이다。明年度부터 簡易學校를 擴張한다하니 一層더 이點에 留意하야 敎員優遇案을 쓰는 同時에 一不二度의 實을 매즐것이다。

勞働組合代表大會 仲裁決議案採擇

二百七十票對百八十票의 差로

米國總罷業의 續報

【桑港十七日午後八時半聯合發】勞働組合代表大會는 十七日夜 二百七十票對百八十票로 仲裁決議를 採擇하엿다

勞働總罷業 仲裁案內容

【桑港十七日發聯合】總罷業決行以來 前後三十時間 十餘萬의 同志를 糾合하야 勞働者의 利益獲得에 大大的 活動을 開始한 總罷業指導委員會는 드듸여 十七日夜 仲裁에 同意하야 事實上 海上勞働者에 對한 仲裁案에 同意할가 그러치안흐면 勞働大衆의 支持를 밧지안코 單獨히 罷業을 繼續할가에 對한 最後的勸告를 行하기로되엿다 이 決議案은 勞働組合의 代表選定을 條件으로 하엿다 그리하야 거의 無條件으로 一切의 案件을 仲裁에 附하기를 勸告하엿는데 其內容은 左와如하다

一、埠頭人夫海上勞働者及雇傭者에 對하야 總罷業을 仲裁에 附하기를 勸告함

一、雇傭者側은 中央勞働組合과 各種産業部門을 正當하게 代表하는 勞働團體를 承認하기를 要함

一、華盛頓 오레곤 칼리포니아 各州知事及附港埠都市의 市長은 루즈벨트大統領에 對하야「이非常時에當하야 一切의 紛爭을 仲裁」에 附하도록 盡力하기를 希望한다

埠頭勞働者들은 調停에 絶對反對

總罷業委員會決定不拘코 人夫組合書記長言明

【羅迪桑港十七日發】埠頭人夫組合書記長쿡크氏는 總罷業委員會가 決定한 調停方針을 假令 總一이라도 當方은 絶對反對임으로 拒絶할수밧게업다고 言明하엿다 따라서 總罷業이 解決되더라도 埠頭人夫의 罷業은 同時에 解決되지못할것이 判明되엿다

調停成立까지는 波瀾難免

【羅迪桑港十七日發】桑港總罷業指導委員會中에 가장 勢力을 가진 保守派幹部의 主張이 大勢를 決定하야 調停을 受諾할 意見을 決定하엿는데 保守派幹部가 十七日漏洩한바에 依하면 委員會는 海員組合强硬派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斷然調停을 求하고잇다 그러나 資本家側이 勞働者의 團體交涉權을 認定하느냐 안느냐 하는것이 現在重要問題인데 資本家側에 有力한 地位를 占領한 米布汽船會社長 로자스·라파마氏는「船主側은 無條件調停은 拒絶한다」고 말하야 調停成立까지에는 아즉도 相當한 波瀾이 잇슬것이 豫想된다

雇傭主側도 調停受諾?

【羅迪桑港十七日發】總罷業幹部側은 調停受諾을 決定하엿지마는 右調停이 完全히 成立되라면 于先 雇傭主側이 이에 同意함이 必要함으로 組合側에서도 總罷業이 解決되라면 雇傭主側이 調停案에 同意하지안흐면 안된다고 하고잇는데 雇傭主側에서도 結局 右調停을 受諾할것으로 豫想된다

紐育總罷業은 失敗에 도라가?

【東京電話聯合】米國桑港總罷業의 餘波가 大西洋岸에 波及할 念慮가 잇다고 傳함으로 日本郵船紐育支店에 照會하엿든바「紐育의 同情罷業은 그 刹那에 失敗되엿다」고 十八日返電이 잇엇다

滿洲國木稅法 八月一日實施

【新京十八日發聯合】滿洲國財政部에서 制定을 急히하고잇든 木稅法은 드듸여 法制局의 審議를 完了하엿슴으로 八月一日부터 實施할 豫定이다 同法의 施行에 依하야 全滿一率로 木材伐採價格의 百分之八을 課稅할 豫定이다

宋、顔、顧、胡四氏 青島서 重要會議

極東實情을 再檢討?

【上海發】顧維鈞 胡世澤兩氏는 歸國後 顔惠慶 宋子文氏等과 會見하고 中國對外方針에 對하야 協議를 行하고 政府에 重要提案을 提出하야 所謂親米派가 勢力挽回를 策함이라고 觀測되든바 確聞하면 顧胡兩氏는 上京에서 歸京인사를 遂한後 避暑를 口實로 青島에 赴하야 먼저 赴青하 宋子文 顔惠慶兩氏와 맛나 同時에 外交方針을 協議하기로 되엿다한다 青島會議에서 此等四氏가 如何한 會議를 行할는지 推測할수 업스나 從來親米政策이 完全破綻된今日 再次現在 汪黃政策을 正面으로 反對하는 他力本願의 外交方針을 建議치는 안으리라고 觀測된다 特히 顔惠慶氏나 宋子文氏는 恰例한 人物로 特히 顧氏는 주네브에서 日中直接交涉을 瞎瞭(?)에 力說하엿고 顧維鈞 胡世澤氏도 政情을 잘보고잇는 人物으로 彼等이 撤想하는바와 갓흔 反日的謀議는 行치안으리라고 觀測되나 一九二五、六年의 危機에 對한 中國의 對外方針이라든지 目下 여러 가지 意見을 綜合하야 政府에 建議하리라고 觀測된다

總罷業防止를 協議하는 퍼킨스米國勞働長官 (左로부터 둘재가 퍼킨스女史)

不遠에 完成될 總督府豫算編成

八年度剩餘金은 破記錄的이나 事業엔 依然緊縮方針

朝鮮總督府의 十年度豫算編成은 目下財務局司計課에서 爲先 歲入調査를 急히하고잇는데 十八日까지에 鐵道、遞信、專賣 三局의 官業收入及森林收入의 稅收豫算書가 提出되고남어지의 稅收 稅務課의 集計가 끗나는대로 數日中에 司計課에 提出될模樣이다 司計課에서는 歲入槪算書의 完備됨을 기다리여 再吟味를 한後 各事業官廳에 折衝을 開始할 豫定인데 느저도 今月末까지에는 歲入槪算은 結定될것으로 보인다 一方 歲出方面은 內務局、殖産局의 一部及財務局이 提出하엿슬뿐으로 其他各局은 모다 歲入方面의 集計를 觀望하고 提出을 躊躇하는 터로 八月에는 黑字豫算編成을 豫想하고 許多한 新規事業計劃은 一時에 急作히 殺到할듯하다 一方 査定當局 司計課에서는 依然緊縮事業의 着板을 내세워 모조리 斧鉞을 加하라고 苦待하고잇슴으로 各局에서는 猛烈한 豫算爭奪戰이 展開될것이다 또 八年度의 記錄的剩餘金使途에 關하여는 司計課에서 硏究를 進行中인데 借入金償却外 一部를 一、二年度限으로 完成할 土木、營繕費等에 充當할 方針이라 한다

又復頻發하는 蘇機의 國境侵入

外務省서 極히 重視

【東京電話聯合】十八日哈爾賓森島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綏芬河 포크라니치나야 警察署로부터 哈爾賓警察署에 到達한 急報에 依하면 十六日午後零時二十五分 蘇聯軍用飛行機一臺에 二名의 將校가 搭乘하고 綏芬河上에서 約四百米의 高度를 保하면서 二十五分間에 亘하야 旋回飛行을 行하면서 同地方의 地區를 撮影한 模樣인데 去八日 黑龍江上의 滿洲國汽船 油口號가 蘇聯國防軍의 不法射擊을 發한 事件과 五月十二日同樣의 照寶號不法射擊事件 洋湖號發砲事件以來로 래동 안中斷되엿든 滿蘇間의 不祥事는 蘇聯邦의 西境東歐州相互援助協定獲得을 契機로 再現된 觀을 呈하엿다 또프라우다·이즈베스치아紙等은 日本을 두려워할것업다는 極東 蘇聯軍備의 最近態度와 아울러 今回의 飛行機越境은 가장 注目할 事件이라하야 現地官憲은 勿論 日本外務當局은 蘇聯政府의 態度에 注意하고잇다

式部長官後任은 松平式部次長昇任

【東京電話聯合】林式部長官의 偶然辭職한 關係官辭任에 依하야 後任은 式部次長 松平慶民子의 昇任을 내모機樣인데 同長官은 官制上 勅任 又는 勅任으로되어잇슴으로 松平子를 任命함에 高等官 一等으로 陞敍하기로 決定하엿다

國家總動員에 備코자 自働車大工場設立

陸軍省서 設立援助

一九三六年의 危機突破對策

陸軍省에서는 一九三六年의 危機를 압두고 國家總動員施設의 實現에 努力하고잇는바 林陸相도 荒木前陸相時代의 懸案을 一日이라도 速히 解決하기爲하야 岡田內閣에 對하야 細胞當初부터 國家總動員이 近代的國防의 中核이된다는 旨를 强調하고잇다 特히 近代戰爭의 機械化에 伴하야 自働車의 使用이 不可缺한 必要事가 되여잇는 事實에 鑑하야 民間에 잇서서 其補充과 擴張을 爲하야 一大自働車會社의 創立을 企圖하고잇는것은 자못 注目되여잇다 其具體案에 對하여는 商工當局과 이미 協議를 進捗하고잇슴으로 近近實現되리라고 觀測되는바 其槪略은 左와如하다

一、政府援助下에 純民間會社로하고 반드시 獨占事業으로하지안을것

一、製造車는 一般大衆의 需要에 對策으로 新興滿洲車의 標準型을 規格統一하야 大量生産할것

一、新標準車의 部分製作組立은 群小下受工場에 可及的 引受케함

一、政府에서는 補助金을 交附치 안는 代身에 新標準車를 陸軍省을 비롯하야 全國官廳이 率先하야 買上하는等 諸般便宜를 與할것

陸軍國防國策

軍事參議官一致原案決定

【電通東京電話】十八日午後二時부터 陸軍省大臣室에서 開催된 非公式軍事參議官會合에서는 旣報한바와가티 林陸相으로부터 陸軍側의 國防國策에 關하야 이에 對하야 各參議官에 求하고 이에 對하야 各參議官의 意向을 으로부터 質問的意見開陳이 잇슨後 忌憚업시 協議한 結果全員一致原案을 決定하고 散會하엿는데 國防國策에 關하야 ...

政務官就任者 斷乎除名處分

【電通東京電話】政友會는 十八日午後臨時總務會를 開催하고 政友黨員으로서 政務官에 就任하는者 一黨規紊亂으로 當然 第十五條를 適用하야 斷然除名處分을 하기로 決定하엿다 政務官確定과 同時에 그 趣旨를 當人에게 通告하기로 되엿다

陸軍首腦部는 全體가 協議決定한 것은 이것이 最初의 일로 이런 意味에 잇서서 極히 重視된다

中滿兩國間의 非戰區問題折衝

【奉天十八日發聯合】北平公使館附武官柴山中佐는 十六日午後五時四十分 來關하야 山海關特務機關長 儀我大佐와 會見後 十時三十分北戴河에 向하야 同地에서 中國側代表 殷同冀察員陶尙銘氏와 會見하고 非戰區域에 잇는 未解決事項인

一、建昌營駐屯의 日本軍撤退와 非戰區域의 特別警察隊設置

一、長城各口、山海關古北口의 稅關分關設置等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行하엿는데 十八日儀我機關長과 가티 奉天經由新京에 向하엿다 柴山中佐는 今番上京目的은 河北不戰區域의 未解決事項과 設關其他 協議를 하기爲함인데 再次大連會議를 開催할가말가는 아즉생각지안는다 라고말하엿다

나치스勢力東進 獨蘇關係益惡化

結局獨伊、佛蘇對立의 激化?

빨틱三國은 苦憫莫大

히트러首相이 노이라트外相을 帶伴하고 水都베니스에서 뭇소리니를 會見하야 파쇼의 巨頭의 握手라는 歷史的光景으로 世界를 놀래케하라고 伊太利의 上空을 向하야 出發하라는 直前에一 파쇼와는 氷炭相容할수업는 蘇聯外相 리트비노프氏의 命을바더 蘇聯駐獨大使는 노이라트外相을 訪問하고 別紙이蘇聯의 獨逸에對한 提議에 關하야 東歐羅巴協定을 日本(?)...에 對해 拒絶하기를 要請하엿다

「로카르노條約」이 西方의라인란드의 保障條約이면 이「東로카르노條約」은 바야흐로 東方의 폴란드、포란드、蘇聯、獨逸의 國境線에 連하야 現狀維持를 目的하는 保障條約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런데 노이라트外相은 이 蘇聯의 提議에 對하야 「獨逸은 個別的同盟政策에 贊成치안코 또獨逸과 蘇聯과의 保障는 現狀대로 滿足하다」고 생각한다는 理由로 拒絶하엿다

蘇聯側의 拒絶을 當하기前에 또한가지 獨逸에 提案하엿든가 同樣으로 一蹴된것이 잇다 今春莫斯科駐在의 獨逸大使를 通하야 蘇聯政府가 提案한 빨틱海沿岸諸國 卽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트아니아의 三小國의 獨立不可侵의 保障條約이 그것이다

이것도 拒絶理由는「이가는 獨蘇協定이 成立되는 빨틱沿岸諸國을 保護하는 것이로 또 獨蘇가 只今새삼스러히 이가 ...

그러나 以上과가튼 獨蘇의 反目의 他面에 獨蘇의 經濟的接近이 頻繁히 主唱되고 잇는것도 이지음 생각해볼 必要가 잇다 나치스의 天下가 되기前의 獨逸一蘇聯과는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잇섯다 一九三一年頃까지는 蘇聯의 貿易은 獨逸品輸入이 第一位를 占하야 獨逸에는 자못 고마운 顧客이엇다 그것이 나치스의 制覇와 同時에 激減하야 最近에는 되려 獨逸은 蘇聯에 對하야 入超國이 되엿다 그우에 獨逸은 昨今 貿易沈滯로 困難中이다 이런으로 蘇聯과의 關係를 一九三二年以前에 回復식혀 獨逸은 蘇聯으로부터 棉花、羊毛、獸皮類、油粕、木材、石油等의 原料品을 輸入하고 蘇聯에는 獨逸의 機械類를 賣却할 計劃으로 이것은 一部資本家間에 熱心히 主唱되야 이미 交涉中이라고 傳한다

獨逸이 蘇聯과 經濟的 接近을 꾀하면 빨틱海沿岸諸國을 包圍하는 獨蘇의 確執은 적어도 表面上이나마 幾分間緩和될것이다 그러치안하는限 現在歐洲를 二分하는 獨蘇提携의 파쇼陣營과 이에 對抗하는 佛蘇及小國等의 反파쇼의 共同戰線과의 武裝的 對立이 激化되게되야 빨틱沿岸三小國을 圍繞한 獨蘇關係는 一層 惡化되리라고볼수밧게업다

元來 나치스와 東歐洲인 發트海上의 第一級의 鬪士는 로젠벨그氏다 그는 나치스外交部長으로서 將來 自國의 運命을 빨틱海에 걸고 나치스의 民族主義的外交政策과 闘爭의 國家에 併合하고자하는 政策에는 蘇聯側이 警戒를 게을이 안는바이다 그런데 그의 主張은 빨틱海沿岸의 局限되여잇는 侵略國家이나 에만 ... (續)

三南農村管見記

穀倉全北平野

土地資本의 進出狀況 【十五】

洪鍾仁

群山에서 全州까지。山岩의 朝鮮에서 地平線을 볼수잇는곳까지。속시원히 터진 大平野를 보려거든、이땅에와 보라。이땅은 여기에 새삼스러히 紹介할것도 업는、有名한 全北平野이다。北으로 忠南、全北道界에 錦江이 흘러잇고、萬頃、東津의 二大流가 道內西部를 橫流하고잇서、灌漑에 便宜를 더러、地味가 肥沃하야 半島米産의 代表가 되는곳이다 道內東方의 山間部를 除한 西方의 全州、益山 沃溝、金堤、井邑、扶安、高敞 等七郡에 뻐친、廣漠한 平野는 南北二百餘里、東西百數十里로、群山서 全州까지 約한時間半汽車로 달리는동안에도 山이 좀처럼 업승은아니나、一望無際의 田園 이 繁煙속에 까마득하니 끗을 감춘곳을 左右車窓으로 展望할수 업섯다。더구나 裡里近方에 와서는、縱橫으로、暮色사치는두렁을 처노은 水田이 쭉편한데、오다가다 四五戶의 人家만이 點點이 잇는것을 發見할뿐 마치 大陸의 草原地帶를 聯想케하엿다

◇

果然 기름진이땅、쌀이 샘솟듯할 아는이땅、얼마나 自然的으로 福바든 땅이라고、讚歎의 소래를 發할수 업섯다、그러나 農民에게 반갑이 不幸한(?) 이땅의 天惠를 感謝키 어려울수 잇섯다。毁然히 두 렁을 지은 水田은 거의 土著의 手로、今대로 보다 시라진 것이 아니라、土地資本의 開墾事業의 結果이다 原野이며 旱地이던 이땅을 開拓한것은 大農場大會社 所有의 明示이다。農業資本의 大宗으로하는 韓國에서 처음을 꼽는 沃野이라、農村의 資本이 이땅을 차저 오게된것은 마치 꿀 을 차저 드는개아미떼나 마찬가지 엇다고 할것이다、明治三十七、八年부터 日本內地의 土地資本은 韓國時代부터 이땅에 急激히 들어오기 始作하야 다시 土地改良事業以後 그들의 土地所有는 더욱 擴大되여 今日에는 莫大한 面積에 달은다 이제 大略 그 土地資本의 流入狀況을 알어보기로 하자

◇

全北의 耕地面積은 畓十七萬三千三百餘町步에 田六萬七千 餘町步로 田畓 合二十四萬八百餘町步 比는 田二割八分에 畓七割二分인데 任에 日本內地人의 地主는 五十町步以上이 百七十八人(昭和五年調査)이어 百町步以上 所有者만으로 七十一人이요 그 面積은 四萬四千餘町步이 다 其中에 千町步以上이 六人 二千町步以上이 四人 그以上으로 大會社는 八千三百餘町步를 所有하엿다 그러고 田畓의 面積을 보면 畓이 만코 山間部보다 平野를 占領한것은 勿論이다 다음에 水利組合區內의 狀況을 보면 朝鮮人은 組合員(地主) 七千七百二十七人에 所有面積 一萬五百餘町步로 其中百町步 以上이 單一人에 百三町步이고 五十町步以上 五十町步未滿이 六人 그以下十町步以上 안되는데 滿이 百四十九人밧게 日本內地人側은 組合員一千二百七十八人에 所有面積二萬九百餘町步이고 其中百町步以上 所有者가 二十六人에 一萬四千四百餘町步이고 五十町步以上 百町步未滿이 二十一名、十町步以上五十町步未滿이 百八人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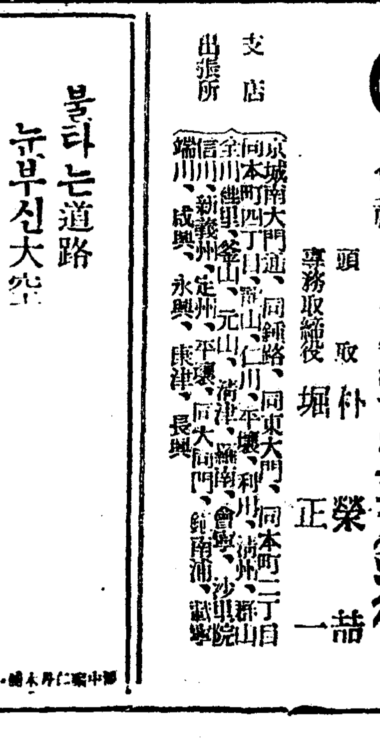
水利組合區內의 實勢力은 日本內地人側이 이 六倍가 량되나 組合員數는 朝鮮人側이 絶對的이다 組合員의 所有面積는、그 折半밧게안 되는 大地主가 日本內地人이 만코니、水利組合을 만히 利用하야 생활만히 生産하는 사람도 그들이요、米穀을 만히 移出하야 阪神地方에보내 는者도 그들일것이다 ... 全北沃野의 農民은 企業化하고 金融資本的으로 된 이모양으로 더말할것업다 農民의 地位는 從來의 地主一小作 人이라는 素朴한 關係를 찾기는 힘들게 되엿다 (續)

大阪短期市況 (十八日)
夕刊後의 市況
訂正 大阪短期鋪新條場大引百二十二圓二十錢은 誤植이오 百三十一圓七十錢

人事·集會
▲野澤源次郞氏(東京野澤組)入京人事次來社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京城朝鮮
(營業案內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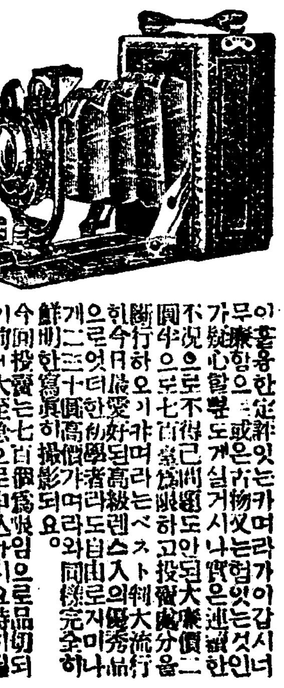
불타는道路
뉴부신大空
여름에 지지마라
胃腸에 仁丹……
仁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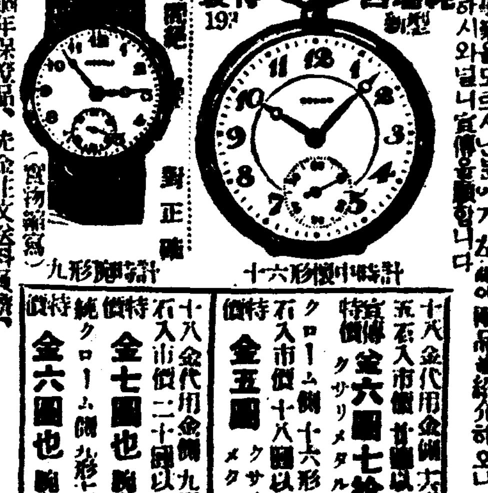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十壹番地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府大門通、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利川、淸州、群山、全州、鐵原、釜山、元山、濟州、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端川、咸興、永興、康津、長興
出張所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允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大衆用大流行의優秀品
高級 ベスト判 寫眞機
在庫品整理=投賣=二圓半
複式シャッター單玉、レリーズ付 (角形)
이 寫眞機는 種類多數로 가장 優秀한 高級品으로 一般의 愛好를 밧든 것인데 今回 特別히 ... 同樣完全한 品입니다
申込은 先着順으로 品切되기 前에 至急 申込하시요
送料共二圓九十五錢(海外는 代金引換을 不應함)
東京神田小川町二丁目
振替東京七二五四八番 東京寫眞器商會
發賣元



新製品萬人向特選十八金側金用代時計大賣出
純西洋形 特製 新型
十六形 時計
九形 腕時計
十個年保證品、先金注文送料負擔
新義州府 雲井町九 歐米洋行時計部
郵便局私書函四十二號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東海岸을타고서……

義湘臺千仭足下 海藻만념실념실

世祖大王遺蹟、願殿인龍船殿

―第八篇義湘臺―申敎淳記

구보(舊步)하든 삭막이 괴창(氣蒼)한 곳의 가지 가지

義湘臺紅蓮庵

설악산(雪岳山)줄기가 동으로 다룽질 하다 가급히괴착자세 취한곳에 락산(洛山)이 생겨잇고 락산이 그친 곳에의상대(義湘臺)와홍련암(紅蓮庵)이위래하게부터잇고그 아래절벽밋헤 바다가 펼쳐잇다 이바위끗헤서 동해를 굽어보다관음상(觀音像)을뫼셧다고하다 시뎨기바랏다가마츰내아니되매 동해로 뛰여들라든의상선사(義湘禪師)로말미암어락산사와홍련암이 생겻것만 의상대역시그와한께이름을 어덧다는 것이다 벌아래 몸을 굽혀 의상선사의보든 관음상이 혜여나 보일가바 속절업시 기웃거렷스나속한의눈에 보일바업고 다만검푸른물결이 바위사이를 아르삭여 일렁거리는대로 황록색의 해조(海藻)들이 괴롭게 촉각(觸角)가튼 닙새를움즈길뿐이다 자연으로생긴 단애(斷崖)는 터말할바 업거니와 인조의혹모정도 고색이창연이속에 단아하고도 절묘하야 시인의시(詩 주머니를원고 우리의 金金 기우러가 얼마유하얏다 한산사에는 세조(世祖)와 석제어만 어룡선전(龍船殿)이란 세조의 원찰(願刹)을 비롯하야 어제빈일두(御製白佐)등을 보고 흥여양으로 석경을들어서 보라굿(宮殿)갈려진 바위들에는 해조가 흉노(胸濤)하야 우주호 한중굴속으로 등하얏고 그위에는 까무둑이보이는 물각(佛閣)이 소사잇서 네기둥은바위에세웟스나 몸체는 바다에 떠서잇다 건설에 이곳은관음보살의령험이보인곳으로그바를소용돌는 바위를동굴이 산허리에잇든 락산사법당밋과 통하얏스니 세조께서 말변에가지섯든악질(惡疾)을 이듯굴의 물로 심아상정이면 목욕하고재계하야 맛슴내몸(御病)을 떼여버리섯다는것이다

나그네의눈에는 보이는게 모다신긔하얏고 놀라웟스나 무심한ㅅ네들은 옷녀아래녀 바다。서미역따기에만분망하냥하얏다

酒黨에大痛棒

藥、濁酒價를高價로引上

千七百販賣者蹶起

경성양주조합(釀酒組合)에서요 지음에 별안간에술갑을 올렷슴으로 경성안흠식영업자 일천칠백여명으로 조직된 음식점조합(飮食店組合)에서는 오는 이십일오전열한시에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공회당에서 대회를열고 대책을강구할터이라 한다

양주조합에서는 종래에 약주한말에 삼원삼십전에 팔든것을단번에 팔십전이나올려 사원오십전으로 또 탁주는 한말에 일원이십전하든것을 륙십전 이나올려서 일원팔십전을 밧고팔기로되엇슴으로 음식점 조합에서는 이래서는 도저히그 술을바더다가장사를 하기 곤난한 형편이라하야 모다 들고일어나서 대항책을 강구하게 된것이라는데 만약 양주조합에서 양보하지안는다면 음식점 조합에서는 비매동맹(非買同盟)을 하게 될는지도알수업다 한다。

正義府頭領吳東振

廿六日間을斷食

新義州서도斷食、今番이二次

精神狀態는少無異狀

일즉이 만주에서 오래ㅅ동안정의부(正義府)수령으로○○운동에 종사하든 오동진(吳東振)은 방금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장기징역을 살고잇는중인데그는어떤까닭인지지난달이십삼일부터 돌연히 단식을하기시작하야 십팔일까지 이십륙일동안이나 계속하고잇다 한다

그는다맛물만은먹고잇다하며 몸은몹시 쇠약하야 몸무게가훨신줄어젓다는데 감옥당국자도 난감해하고 잇다한다 그러나자긔가 거처하는 감방(監房)소제는자긔손으로 반드시 하고잇다 한다그는원래 몸이 강건하엿스나오래ㅅ동안 감옥생활을 하엿고또한 로령임으로 별안간에어떠한고장이 나지나 안홀가념려된다한다 그는년전에신의주(新義州)형무소에 수용되어잇섯슬적에도 형무소에 대한불평으로 삼십일동안이나 단식한놀라운 긔록을 가젓다한다

(사진은 오동진)

不平은업다 當分間放任

橫田刑務所長談

오동진이 단식하고잇는것은 사실인데 형무소에대하야 무슨불평을품고 시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정신상으로 어떠한정신한 경험을엇고저 하는것으로짐작합니다 먹을밥으로 一세끼식 언제든지 준비해잇스니까 그가 먹고시퍼할때에는 언제라도 먹일작정입니다 이십륙일 동안이나 물만마시고잇슴으로 몸은무척쇠약하엿습니다 만약 아주위험한 경우에이르게될때에는 형무소에서도 응급처치를 할생각을하고잇습니다

水分攝取하니 當分間은無妨

任明宰博士談

사람이매일섭취하는 영양분(營養分)은 일상의활동으로말미암아 일부분은 소모되고그일부분은 몸안에 저장되어잇다가불시에 부족한때에 보충되는것입니다 사람이섭취하는 영양분은단백질(蛋白質)함수탄소(含水炭素)염류(鹽類)물(水) 지방(脂肪)「비타민」등여섯가지인데 그가운데 운동도 과히하지안코감방안에 가만히 안저잇스면평소에저장되어잇든 그영양분으로 부족을 보충할수 잇스며또한평소에 몸이 튼튼하엿고 여섯가지섯분의 하나인물을 마시고잇다하니 한달가량 단식이라도 넉넉히할수잇슬것입니다 서양 어느나라에서는 밝혼기 경쟁을하야칠십이일간을 꼼박 굶은사람이잇섯습니다 그것이아마 세계의최고긔록일것이올시다

쇠가쇠를먹고……

강도가동무강도집에드러가 巨額金品을窃盜질

강도전과자가 친구인 강도전과자의 철의집에가서 물건수흠치고 그만피발을당하야 체포된일이잇다 경긔도 장단군(長湍郡)출생 강도전과이범 류종근(柳鍾根)(三九)은오년전에 서대문형무소를 나와서는 외룡동(臥龍洞)칠십팔번지 류정숙(柳貞淑)(三九)을 첩으로 정하고 동거하면서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하고잇서서 항상 경찰의 의혹을밧고잇섯는데 십오일 오후열한시경에 수창동(需昌洞) 그의친구인 강도전과 삼범정모(鄭某)(三三)외첩리모(李某)의 집에 놀러갓다가 그만금반지등 시가일백오십여원어치물품을훔쳐가지고 도망한것이 발견되어 소관 종로서에서는 그행방을 극력조사하고잇든중십칠일오후두시경에 종로삼정목행길에서 종로서원에게 채포되여 엄중한취조를 밧고잇는데그밧게도 여죄가상당히만다고 한다

嫩江도增水

【齊齊哈爾十八日發聯合】 눈강(嫩江)의 증수는 각각으로그도를더하야 십칠일 오후에는딜경 교각(橋脚)세개와 피ㅣ야누개가 류실되여 남만과의교통은 완전히 두절되엿다 응급대책으로 맛친 합ㆍ빈(哈爾賓)으로부터눈장에 와서잇는 기선을리용하야 연락을개시하게되엇다

洪原農組事件

홍원 농민조합사건의 속행공

疑問의殺人犯 畢竟有罪決定

【洪城】 귀보=충남보령군청소면장곡리(保寧郡靑山面長谷里)김연환(金延煥)(四○)은자긔아안해최재숙(崔在淑)(三三)과한방에서가리자든것을 금년일월십륙일 오ㅅ한시경에 그피해자의 집식칼로 멱을찔너서 피해자김영환은 거이륙칠십간이나되는그이웃김판실(金判實)의집에까지뛰여가서 「나는 최괴한(崔繼漢)이때문에 죽는다」는두마듸의 말을남기고 죽어바리자 당지보령경찰서에서는 혐의자수십명을 검거하야 취조한후 피해자의처최재숙(崔在淑)(三三)을살인죄로유서형(柳錫照)(二八)을살인교사죄(殺人敎唆罪)로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검사국에 또다시 검사국에서는 동지방 예심계(豫審係)에 넘기게되어 일반세간에서는 이 사건의귀추에 여론을 자못 하든바 사건발생이래 만사개월인한개성상을두고어림한조사한결과범죄사실이 살인죄(殺人罪)유서형외일인을 적결정되어공주지방법원으로넘기엇다 한다

當世處女氣質!

싀집은안가도戀愛遊戲가OK

父母말듯기실허出家

「모던」아가씨는 사랑은 조와도 결혼은 실탄다 십팔일 아츰 시내 청진동(淸進洞) 사십오번지조하선(趙賀善)(假名)은그족하딸춘심(春心)(一名蓮生)(二十)을차저달라고 소관종로서에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그자세한이야기를들으면 춘심은 지난봄에 안변(安邊)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상경하야 그숙부의집에잇섯는데 그숙부가 싀집을가라고 하엿드니 싀집은실코 기생이되겟다고 함으로 멧시 모퀀번 기생견습을 시키고잇섯다한다 그러든중에 그집에 하숙하고잇든 시내 련건동(蓮建洞) 직업학원 생도 김봉운(金奉雲)(假名)(二三)과 그만 어느새 사랑에 빠젓다 그숙부는 매우 걱정하야 그사나히에게 서로결혼하기를 당만햇드니 그는매우냉담한태도를 취함으로 족하딸을보고그사나히가 진정으로 하는일이아니고 일시작난으로 하는일이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엇다녀자는 그만 사랑도마음대로못하게한다고하야 화를내고 십오일 오후다섯시경에 집을 나온후도라오지안는다는것이다

大邱署檢擧青年 全南光州로護送

【大邱】 귀보=그동안대구서(大邱署)에서엄중취조중이던 달성군(達城郡)현풍(玄風)서검거된 정소수(鄭小秀)외사인은 작십륙일에 정소수(鄭小秀) 곽수범(郭洙範)문상호(文祥鎬) 변상규(卞祥圭)네사람은 무사 석방되고정충조(鄭忠朝)(二二)(慶水人)박보홍(朴寶洪)(二三)(濟州島女子)두명은 광주로압송하얏다한다

國內國外로부터 潛入者續續檢擧

安東縣、安岳、楊口等地에서

軍官學校事件續報

【定州支局電話】 귀보=이번에발각된 군관학교사건(軍官學校事件)으로말미암아 정주(定州)경찰서에서는평안북도경찰부와협력활동하든중지난십륙일에경찰부 고등과원이안동현(安東縣)에출장하야김창화(金昌化)외한명을 검거압송하야다가 방금취조중인데 한편으로 정주경찰는고등계원을멀리강원도양구(楊口)에파견하야동지에서리경현(李敬賢)(二八)이라는청년을 검거송하야오고이어 황해도 안악(安岳)에 출장하야허경숙(許敬淑)(二三)이라는 청년을검거하야다가 방금방을 도아가며취조중이다 내용은 절대비밀에부치는중이나군관학교사건(軍官學校事件)은 탐문한대로는 조선만주와일본내지등 극동세지대를 무대삼아 모종의 큰계획을세우고 실행에 착수하든것이 발각된것이라고한다

大手術患者가 突然히失踪

세부란스病院에怪變

순화병원(順化病院)에서는숙은 어린아이의 시체가 행방이불명되여 한 그로레스크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드니 이번에는수술중에도 대수술(大手術)인개복수술(開腹手術)을 한지불과닷새밧게아니되어 자유로 움직일가능성이 업는병자가 입원한 병원에서맛치그림자가티 사라진채 이래엿칠동안이나 경과하도록 도모지 행방이 묘연한기괴한 이야기거리가생기엇다。

사건의 주인공은 시외마포동(麻浦洞)일백십번지 강영춘(姜英春)(四四)이요 무대는 시내남대문통 세부란스병원 입원실과 본정경찰서의 보안계。

강영춘은 지난사월에 세부란스병원에 입원을하엿다가 복부절개수술을 바든것이 팔일이요 그뒤 십이일밤까지 별이상이업시지내왓스나 병원의 처치도불론절대안정을 요구하여거니와 환자자신의 건강도 운동을할상태는 아니엿섯다 더욱히신경이 극도로 쇠약하여 혹은정신상무능이상이 생기지나 아니할가하는염려로 병원측에서는 부단의 경계를 하여오든터이다 십이일밤열한시경 당임한 간호부는환자를안민케 하느라고 병실에드러가 전등불을 꺼주엇는데그리한지약 한시간후에 다시병실에 와보앗슬때에는 환자가 누어잇든침대가 텅비인채 간곳이보이지아니하엿다 대경질색한 병원에서는 위선병원구내를 고비삿삿이뒤지엇스나 발견치못하고 마포인 환자의집으로 차저가보앗스되 역시집에도 도라오지아니하엿다。

이는이튼날인십삼일새벽에는환자의부인 박씨가달려와서 한바탕야료를첫다 이다 시체라도내노아라고하고을며부르짓는것이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정신이상이생기어 자살을한것이 아닌가하고 소관본정서에의뢰하야 백방으로 수사하엿스나 사건이발생된지 일이엿새동안이 경과하엿건만 종적은의연히 묘연하다。

십팔일 아침에도 환자의부인 박씨는 소관본정서에와서 남편을차저내라고 호소를하엿다

이사건에대하야 원부측에서는환자가 혹시치료비관계도 그와가티 다러나지나 아니한가하는의심을 품기도한다 이것이사실이라면 사건은한 넌센스극(劇)에 불과하겟지만 만일그바게무슨 관계로해서 그와가티환자가 분실되엇것이라면 적지아니한물의와 이약이거리를 비지어내게되리라한다

不良社員橫領行脚

원적을 기부현(岐阜縣)에 두고 시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일백륙십사번지내외각국화재보험회사(內外各國火災保險會社)대리점인 천도보험사무소(川島保險事務所)의 영업주임대총수계혜(大塚壽計惠)(四一)는그가근무하고잇는 천도보험사무소의 공금이천여원을 횡령하야 유흥에소비한죄로 지난섭일 시내본정서에검거되야 이래취조를 바더오든중 금명간일건서류와 한가지로송국하게 되엇는데 대총은본시명치대학(明治大學)출신으로 원산(元山) 국제통운회사(國際通運會社) 재근 당시에도동회사의 공금륙천원을 횡령소비한 죄상이 잇서원산지방 법원지청에서 일년징역에 삼년간 집행유예의 특전을입고 경성으로올나와 천도보험사무소에 입사한지 불과일년밧게 아니되다고한다

大邱運輸人夫 罷業圓滿解決

【大邱】 귀보=대구조선운송주식회사(마루보시)인부팔십여명이 임금인상요구로 동맹파업을단행한사건은 작십륙일에 이르러

一、임금은종전대로

二、불량십장(什長)은면직으로

三、파업비용삼십원은고주측으로

하고 로동자측대승리로 무사히 해결하엿다

荷車殺人兩件

【靑陽】 지난십삼일 오후세시경에청양군사양면 온직리(斜陽面溫直里)에서하물자동차가전복되여일명은 즉사하고 일명은중상을 당하얏다는데 그사실은산편강하물 자동차 이백구십이호 운전수 박성운(朴盛雲)(二六)이가서선전기회사、권주이개와 인부십사명을 싯고전과 온직리나발타고개에 이르자 마침조고마한바위에부드처운전대를놋치며 전복하자 원적을경성에 두고서선전기회사에 인부로잇는 강원명(姜元明)(五三)은 즉사하고 리모는중상을당하얏다한다

【豐山】 경북안동군풍산면수곡동(壽谷洞) 대로변 에서는 지난십이일 오귀이시경에 만신유혈의 참사가잇섯는데 사실은 그동리 김재도(金再道)(三二)란 사람이 찌는듯한 더위를 못이겨서대두변에 나와자다가영덕(盈德)에서오든 하물자동차두대가진등

文川土地事件

覆審서도原告勝訴

九個會社相對로登記抹消請求

原告는百六十八名

함남문천(文川)리이관(李二寬)외 일백륙십팔명의 지주가조선산업회사(朝鮮産業會社)、동일은행(東一銀行)、종로금융조합(鍾路金融組合)、조선상업은행(商業銀行)、조선연초흥업회사(煙草興業會社)외 네명등 아홉명을 상대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오래ㅅ동안 소송중이든 토지소유권등긔말소청구(土地所有權登記抹消請求)의 소송 사건은 십칠일에 의심판결과가티 역시원고에게 승소(勝訴)의 판결이 나렷다

이사건은 경성 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나렷섯는데 피고들이 불복하고 공소하엿든것인데 복심에서도 역시피고측이 패소되고 만것이라한다

張俊等廿日判決 영동농

민조합사건의 장준(張俊)등 열한명에대한 복심판결은 이십일 오전아홉시에 경성 복심법원에서하기로되엇다

治維法改正案 根本的再改正

來議會에提出키로

【東京電話】 사법성에서는 년번의회에서 묵살이되엿든 치안유지법의 개정을 새로히이번의회에 제안할는지 말는지에대하야 연구중인데 사무당국의의향은 련번의회에 제안하얏든안을 근본적으로 고처가지고 재제안을하기로 결정하고 립안키로하얏다

死亡者四十名

通遼黑死病漸益猖獗

호열자(괴질)의 압잡이인 페스트(黑死病)의 위협이 만주로부터 조선선을향하야 무서운행진을개시하엿다 칠월조순부터 봉천성통요(奉天省通遼)부근과길림성농안(吉林農安)지방에 의사(疑似)페스트성(性)의 환자가발생하야 칠월십일경에는 약사십명의 사망자를 내이자이에 놀낸 만주국 민정부 위생사에서는 즉시 방역반을 조직편성하야 양지방의 발생환자를 검전한결과 진성(眞性) 페스트로판명이되엿다 그러하야 목하 농안(農安)통요의두지방일대에는 엄중한방역망을치고 저력을다하여 방역을하는중이요 만철위생부(滿鐵衛生部)에서도만주국치과 협력하야 칠월십삼일부터다호산(打虎山) 정가둔(鄭家屯) 창문(彰門)의 각 관문역에서 승객의 방진을 개시하엿다 그리고 총독부위생과에서는 함경남북도 평안북도의 삼도에페스트의남하를 방지하도록 통첩을발하엿다

坐劑와軟膏

三共의痔劑アリヘミン

說明書御申越次第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獨特한性能을가진强力消化素

澱粉消化酵素以外。蛋白。脂肪其他二十種以上의消化酵素의寶庫라고까지讚評을듯고잇소。

胃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다ー제) 腸에는

消化不良을비롯하야。食慾不振 肺結核其他 모ー든疾患時에胃腸의消化機能을助長하야。消化不良除去。食慾促進。榮養增進의目的에盛히愛用되요。

錠劑 30錠入 100錠入 200錠入

包裝 粉末 14瓦入 28瓦入

其他大量入有

說明書御申越次第贈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小作農의癌腫인 二毛作牟稅撤廢

咸安郡에서는今年부터實施

郡當局의指示로

【咸安】 함안지방에서는종래에 이모작인 논보리에 소작인으로부터 이할내지오할의 수세를 하여왓슴으로 소작인들은 단체나혹은 개인으로도 이것을철폐하라고 괴회잇는대로 멀사적활동을하여왓스나 당국은 이를좋은 당한 행동이라 인정하고국도의 탄압을 가하고잇든바 농지령(農地令)의 실시를 압두고당국에서는 소작농에게 다소유리하도록 조건을 주라함인지 지난번권군 면장회의시에 군수의 제시로권군각지주에게 이모작모세를 적대로 못밧도록하라고 하엿슴으로 권군각동리에 이뜻을권포하는동시에 각면에서는 암암리에 징수자 유무를 조사중이데이후 주고밧는사람이 잇다면 그들을 불너서 엄중경계할방침이라 하며 금년도지세도 이와거튼방법으로 소작인에게징수를 금지할 듯하다고한다

野菜市場에서 朝中人이便戰

中國人들은不賣同盟

【鎭南浦】 지난십오일오후두시경진남포 룡정리야채 시장에서는야채상을 하는조선인과 중국인사이에 사소한일로 싸홈이생기여조선인측최수호(崔守鎬)외팔명이 중국인후모를 란다하여 이주일이상치료할 상처를내엿음으로 중국인측에서 고소를제괴하는일방 십륙일부터는 중국야채상들은 일치하여 불매동맹을하고 일체시장에 나오지안 이함으로 야채시장이 매우한산하다고한다

한것을알고 그향제를지내든 소유지전부를 동교에 괴부하는동시에 그향제비로 변변금연에 선사원식을 교원조건으로 거출하는것을 금번동교의 재해를당하고 부흥에도력함을보고 더욱분발하야 그제향비를 매년금오십이원으로연구히감하하고매년도절약되는 자인역 임백십이원을동교부흥사업에보조하기로결의하고지난십삼일에유림대표김주홍(金鵬欽)안배홍(安秉洪)김홍직(金鵬翼)삼씨를 동교에 파견하여그뜻을통고함으로동유림제씨의그간독한성의를동교당국자는 물론일반이 매우칭송한다

丹城記俱創立

지난十四日에

【丹城】 금번본사 열당지에지국을둔(東亞、每日、釜山、朝鮮) 사지국괴자를 망라하야 상호의친목을도하며 괴사의보도를 선속히하야 지방의발전과 언론괴관의 발전향상을 목적하야괴자구락부를 창립하엿는데 역원대표는다음과갓다한다

權泰洪 崔彦(東亞)　崔甲(每申)　和田吉兵衛(釜日)　權彦植 李錫根(朝鮮)

되여 적거던지 사계발전에욕하기도하라한다

金慶実 金鎭石 洪健 李

崔 金仁根 李敬伯 金宰孫

永興農組事件 十七名滿期出獄

十六日咸興刑務所에서

【咸興】 영흥농조사건(永興農組) 관계자 십칠명은 작년오월삼십일에 이변의 언도를밧고복역중이든바 십륙일에 만괴되여당일 오전아홉시 남행차로각각 귀향하얏다는데 출옥한분의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黃宅律 金正寬 金興格 黃睿洪 李杜興 陳秉在 金濤　國 張溶東 金斗主 張昌萬　金仁善 金泰吉 尹承瑞 韓昌實 金昌淑 張文行 尹鳳濟

端川農組員十名 廿一日이滿期

全部出獄할터

【咸興】 단천농조(端川農組)관계자로 작년십월륙일에 이변의 언도를바더 복역중이던 아래의 열명은 오는이십일일만괴

西平壤力技團의 朝鮮 滿洲 巡廻行脚

六個月豫定으로發程

廿一日平壤서告別試演

【平壤】 서평양력기단(力技團)에서는 금번전조선을비롯하여 만주에까지 륙개월예정으로 오십여처를 순회하며 력기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는데 먼저 그숙련된기술(力技、鐵桿、그써ー커스)등二十餘種目)을평양에서 발표하고고별을짓고저 오는이십일일(토요일)오후팔시삼십분부터 본사평양지국후원미테 고별력기대회를 개최키로 되엿다하며 일행대표단원 십이명은이십사일 위선남방을향하야 출발하리라는데 개최될 예정지는다음과갓다

黃州、兼二浦、沙里院、新幕、開城、京城、仁川、水原、天安、鳥致院、大田、金泉、大邱、馬山、釜山、全州、晋州、群山、木浦、光州、公州、清州、忠州、長湖院、安城、驪興、元山、永興、咸興、北靑、端川、城津、鏡城、羅南、淸津、雄基、羅津、會寧、間島、吉林、新京、西平街、開原、鐵嶺、奉天、撫順、鳳凰城、安東縣、新義州、宣川、定州、安州

四十餘日長霖 農作거의全滅

平北熙川地方

【熙川】 안만도로(安滿道路) 이백팔십리허에는 지난 륙월오일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야 우금사십여일을 끈치지안코 계속하여옴으로 농작물은 제초를못한관게상 흉변상태에빠지고 평안북도간에 흐르는 청천강수(淸川江水)가 넘치서 나루배를 노치못함으로 지난팔일 부터는 교통이끈치고 우편통신까지 맥켜 세상소식이막연한데 전하는 말들을으면 근년에처음되는 장마라고하며 녕변료북진 도선장(寧邊郡北津渡船場)에는 오고가든 자동차들이 건너지못하고 일주간이나 두류하고 잇다한다

平北地方에怪候 傳染病大猖獗

患者九百餘、死亡百四十四名

【新義州】 해마다여름이되면 급격히 변하는괴후관계로 각지에전염병이서행하거니와 평북일대에는 한달이상 장마가계속하괴천후도 목하본도내 각군에 전염병이 성행되여적리 장질부사 지부테리아등의 환자칠백오십명중 사망자 일백사십팔명이나되는바 이것을세별하면 다음과갓다고한다

◇傳染病患者統計表

郡名	發生者數	死亡數
新義州	四九名	九名
龍川	一一九	一四
鐵山	九一	五
宣川	五七	八
龜城	九六	一七
定州	六一	九
博川	一〇	五
泰川	一二	三
寧邊	四一	五
雲山	三五	九
熙川	一六	二
江界	一	二
厚昌	九	四
慈城	二	九
朝州	一	一
渭原	九	
楚山	二	
碧潼	六	五
昌城	九	一
義州	二七	七
	三	三

◇鮮滿고무定總

平壤고무조합에서는 다음과갓다한다 ... 신월괴(新月舘)에서간친회를 개최하엿섯는데 제일대의 역원은다음과갓다한다

▲組合長＝崔贊洙 ▲常務理事＝金周煥 李輪鶴 吳二平 金乃珣 ▲理事＝崔永昌 鄭陳洙 金成麗 ▲監事＝南汝伯 林周亨

業績大振하는 鮮滿고무定總

【平壤】 조선내지는물론만주(滿洲)서북간도(西北間島)등각지방에서고무화판매에종사하는 저명의상업가들을망라하여조직된 주주총회를십일일정오부터괴립공장(鮮滿護謨工場)에서는과거일개년간의업적을결산하는제일회리공장내에서 개최하엿섯는데 당일에는 결산보고 정관일부변경래빈축사 조합원담사등 순서로총회는 끗마치고계속하여 로정신월판(新月舘)에서간친회를 개최하엿섯는데 제일대의 역원은다음과갓다한다

祭享費를節約 五山校에補助

定州儒林의熱誠

【古邑】 리조 신미변 홍경래(洪景來)동란에 물만을품고 그일을 거사하기전에 조정에상소한일이잇슴으로 그이들을 나라에서 표창하는의미로 정주의명산인 오봉산(五峯山)에 그들의 절사(節祠)를 건설하고 춘추로향제(享祭)를 지내며 또그곳에 서재(書齋)를 설치하야 이래만흔청년을 수용하든바 세조가변함을따라 그서재는 멧해전에폐하야버리고 다시신규묘의 청년을 고려하든바 때마츰년전 오산학교에서 괴본재산이 빈핍

平壤府新規事業인 細民住宅建設

來年度中에實現成案

【平壤】 괴보＝평양부에서는 명십년도사업으로서 부내 괴림리(箕林里) 서성리(西城里) 빈민굴에서 그날그날의 생활을니여나가고잇는 이천여토막민을 위하여첫시험으로 세민주택(細民住宅)을신축하기로 결정되엿다는바 그위안에의하면 총경비 사만오천원을드려 백호의주택을설치할에는 국고에서 반분도지방비에서 약간의 보조를엇기로 되여잇다는데집세는 매달일원오십전내외를 밧고 수용할계획이라하며 만일제일차 사업의 성적이 조호면제이차로 이여서 명후년에도 주댁을 신축할예정이라한다 그러면이계획으로 세해생활권선에서 참때 되고잇는 그들외수를 얼마이라도 막어나아갈는지 각방면에서 크게주목하는터이라한다

移舍길이黃泉길 四名中三名溺死

鴨江에서演出된慘事

【龍岩浦】 지난십일일오전팔시경 압록강하류두류포 부근에서는 이사하여가던 일행이의사한 끔직한사변이잇섯다 한다! 신의주미륵동 김재남(金潤涌金獻南)(二三)은 음식점영업을하고잇든바 별로영업에 자미를보지 못하고 생활은날로위협을 가함으로 어획괴(漁獲期)인 륙칠팔월이되면 동곳이라는곳이 경괴가조타는말을 듯고 친모호리옥(扈利沃)(六〇)과가티 지난오월에전괴동곳에 림시이사를 하여 갓든바 고향에남어잇는 재남의처김씨(二〇)가 병이위급하다 하여 로파는 며느리를다려가라고 도라와서 솔가하여가지고 며누리와가티 편주(片舟)에 몸을실고가든중 불행한때라 근방에서사던 묘령녀자한명이 자괴도 동곳선구경을 갈터이니 가티가자고함으로 사공과 합네사람이 동곳을목표로 내려쓰는 급류에 배돗을 달어노케되엿던바 한시간이 다못되여 두류포부근에다다러 배돗을 돌려노을때에 원홈모를녀자가 도라가는 배돗에휘감겨물우에떠러지자사공은 그를구원할생각으로물에뛰여드러가게되고 재남의처 김씨는그들을다시구할량으로사人대들집어치다가사人대와함께물속에드러가게되자 배는급류에 따라이리저리 표류하며 가던중때마츰엽흘지나든배가로파만은구하엿다한다

酒興이지나처 格鬪끄테致死

【釜山】 십오일저녁 동래군사상면 상락리(東萊郡沙上面三樂里)리영수(李英壽)(三五)는 한동리에사는친구송영이(宋永伊)(四八)이가차저온괴회에술을바더다노코 희담을하든끄테 십륙일새로두시경에밀경겨투를시작하야 차고밧고하야 리영수는송영이를따려죽어바렷다는데이급보를바든 부산서에서는 즉시김서근경부보와 증천(曾川)경찰의를대동 금파하야 현장을검찰케하고 리영수를 상해치사죄로구금하는동시에 시체를 부산서로운반하야 증천경찰의 집도하에시체해부를하엿다한다

定州郡下에 白晝短刀强盜

郡廳雇人을襲擊刺傷하고 現金五十餘圓强奪

【新義州】 지난십륙일 정주군청에 용인(傭人)으로잇는 조병선(趙炳善)(三〇)이가 공문서류를가지고 동군 남면(南面)사무소에갓다가 동일오후 칠시에 점으로 도라오던도중 동면원상(元上)령에서 장한한명이 나타나서 단도를가지고 병선의왼편흥부를찔러 부상케한후 문서너흔가방을 찌저바리고 현금오십원을 강탈도주하여 버렷슴으로 정주경찰서에서는 범인의종적을엄탐중이라한다

◇地方人事

▲吳永鍚氏(江華合一學校長)就任人事次十七日本社江華支局來訪

▲福永德雄氏(芙江驛助役)新任人事次十三日 本報芙江支局來訪

▲多田仁己氏(淸州稅務署長)新任人事次去十二日本社淸州支局來訪

▲李庭中氏(淸州稅務署屬)轉勤人事次去十四日本社淸州支局來訪

▲林中寅氏(安東郡臨河面長)新任人事次 지난十六日本社安東支局來訪

朝滿個人庭球 開催日字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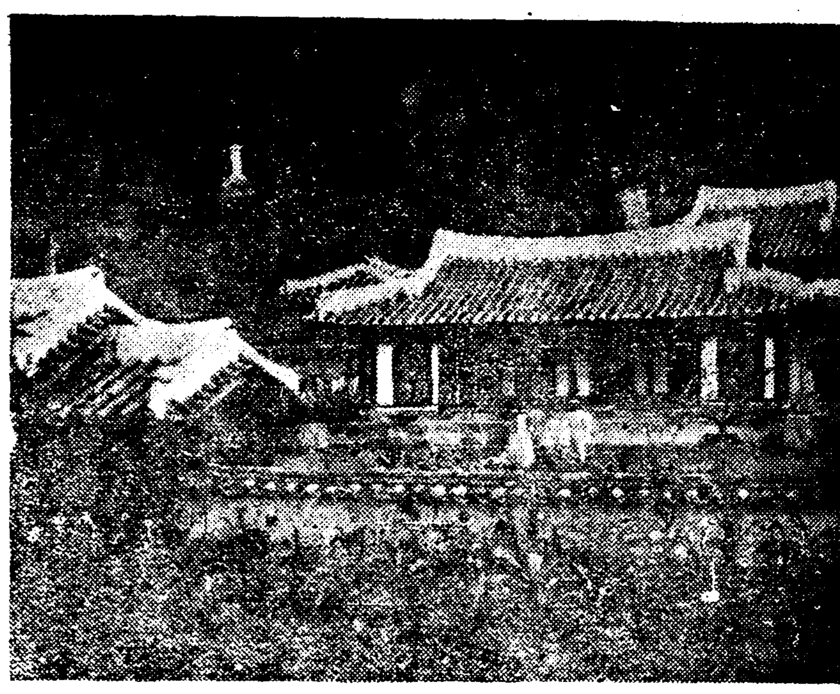
【咸興】 괴보와가티본보도문지국주최로 조만개인 정구대회(朝滿個人庭球大會)는오는이십팔일구양일로정하엿던것인데 지방정세와 준비상관계로 팔월사오양일로연괴하엿다한다

開拓功臣奉祀한 靖北祠記念事業

祠宇修繕과實記出版

【鏡城】 지금으로부터팔백여년전에 녀진족(女眞族)의 침약으로인하야 반도의 실권이불급함을 상탄하우하든관북일대(關北一帶)에십만대군을 휘모라녀진을 판외에구축하고 북강척토(復疆拓土)하야 도탱안민케한 위인이잇섯다 그반만년 서상에 뚜렷이 괴록되여잇스며 리조의 리충무공(李朝李忠武公)과함게관북에잇서서 삼척동자라도 신지하는윤문숙공관(尹文肅公瓘)과 오문양공연총(吳文襄公延寵)장군이다 후인으로하야금그들의 혼령이나마 길이길이위안하며 북관의공적을 후세에추양키위하야 묘우(廟宇)에 봉사하엿스니 리조의 관북개척공신 김충익공종서(金忠翼公宗瑞)와 오숙헌공밝(吳肅獻公命恒)을 합계 향사한지금 경성서문외승암산록(勝岩山麓)에 잇는 단아한 사우정북사(靖北祠)가그것이다 이정북사는 리조세종십구년 (世宗十九年) 에절도사김종세(節度使金宗瑞)씨가 비로소 창건한후이래 매년춘추이괴로 평북십주의 박백수령과유생예손(裔孫)들이향사하여오든바 불행히고종 오년(高宗五年) 에철회령(撤毁令)에혼입되여 일시회철되엿다가 고종광무오년에 다시축건하야 지금에이르렀스나 세환시이(世換時移)함에 자연해이하야 단지유생예손이 모여정북원(靖北院)이라는편리 괴관을만들어 가지고겨우향사 하여오든바 만근에 사환목게 주린무지몽매한 유생예손들은 정북원의소임을 일종의행세거리로 압고이지혐을 빗기위하야 가진음모 추행을다함으로이것을 목격한예손이오 녀사업가인 윤영구(尹泳球)씨는그들의 비행을응징하는 동시차제자괴조상의 공적을표양한다는것보담도 반만년 사상에 혁혁한 광채를빗내고 잇는이위인들의 공적을천주만세에 유전하기위하야 일면부터 당지석유안봉욱 (碩儒安鳳郁) 씨로하여금정사(正史)는 물론 영북십주의행적지를 편답하며 유림에 손을역방케하야 유문야사를 수집한후 정북사사현실괴(靖北祠四賢實記)를출판코저이미 당국의허가까지 어더바금 인쇄에착수중인바 이사업에는 막대한비용이소요됨으로 방금 유림예손과반도인사에게 비격하야 의연을구하는 중이라는데 이사업에대한 주임을 담당한이는아래와갓다고한다

◇任員 總裁金炳奎 總務尹在命 財務尹泳瑞 尹泳球出版安鳳郁 監事李容珊 尹秉球 玄秉治 協贊員李振奎 全在鎬 李澤奕 金應樹 崔揆厚 朴鳳淳外二十一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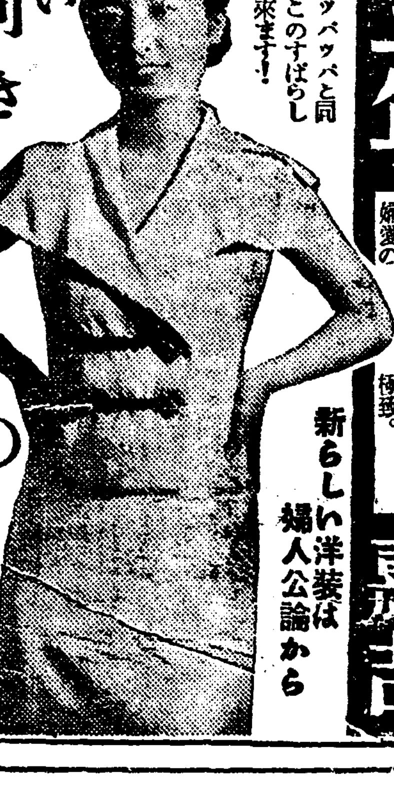
◇…靖北祠宇全景

平壤 告別力技大會

▲日時 七月二十一日(土曜)午後八時半
▲場所 白善行紀念館(入場料十錢均一)
◇主催 西平壤力技團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沙里院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五日(雨天順延)
▲場所 未定
◇主催 沙里院體育會
◇後援 東亞、朝鮮中央、朝鮮三支局 沙里院俱樂部



婦人公論

本日発賣

八月 家庭の平和 号

いよく発表！第二の「出家とその弟子」！

現代長篇小説 祖國の娘・倉田百三

書簡の往復について 蘇峰 德富猪一郎
旅を前にして……嶋中雄作
森の仙女……薄田泣菫

午睡の哲學
晝寝を好む……正宗白鳥
ひる寝の經驗……兼常清佐
晝寝は男にかぎる……林芙美子

職業婦人から家庭の主婦となつて
かつて職業婦人として社會の第一線に働いてゐた經驗が、今、家庭の主婦として如何に役立つてゐるか？ 或ひは禍となつてゐるか？ 貴い經驗の實話二篇。
▽事務員から善兒の妻に…(大阪)村上延子
▽女教師・會社員の妻へ…(京都)志村澄子
▽女給時代の體驗…(東京)太田美奈子

姫娠の早期診斷 醫學博士 佐伯誠一
果實汁で一躍肌を美しくする方法
大懸賞・女學生の夏の試驗問題

樹氷……大佛次郎
春の逃げ水……吉田絃二郎
道中女仁義……長谷川伸
青春音頭……サトウ・ハチロー
黄菊白菊……細田民樹

涼しい漫畫祭 横井福次郎 服部亮英 益子しげを 池部鈞

齋藤内閣から岡田内閣に至る 伊藤正德
政界の裏面を語り、快刀亂麻を斷つ
ダンサーになつた私……三島小枝子
男裝の少女……伊藤金次郎
血に呪はれた家(第二回)……廣瀬徐郎

山田わかと三十三年 山田嘉吉
萬人の女性の母、山田わか女史その蔭にあつて女史をいたわり慰め、勵まして來た夫君嘉吉氏の語るわか女史の眞面目！ 夫婦愛の極致。

涼しい夏向きコットン・ブラウスの作り方
見苦しいアッパッパと同じ値段で、このすばらしい洋裝が出來ます！
新らしい洋裝は婦人公論から
しやらくした絹物は既に昨日の洋裝です。實用的でしかも近代美に輝く新らしい洋裝こそ、このコットン・ブラウスです。安く、手輕で、しかも新らしいこの洋裝こそあなたの生活の誇りとなります。
▽ブラウスとスカーツで外出するには……伊東茂平
▽涼しさうなフラワーピンの作り方……有田八枝子
▽氣輕な夏の旅裝はかうして…ドロシー・エドガース
▽古いビスカー・ベレーをシークなトーク型に…筒井光康
▽お誕生頃の可愛い夏のベビー服…千葉智子
▽簡單で涼しい新案ちぐさ帯……安達ちゆう

女性時評…山川菊榮
熱情の女詩人サッフォー…野口米次郎
海軍兵學校見學記…婦人記者
世界の動き……清澤洌
私の顔…藤澤桓夫・島成園
準日本一の健康兒を育てるまで
恐ろしい乳兒の病氣 醫學博士 山本康裕
五十年間も食後に胃が痛む…高田重正
肺結核の婦人は姙娠を避くべきか 醫學博士 唐澤杉三
スリラを知らしたら脚になるには 醫學博士 小松週允
香水の實際常識…CBA 田中雅子
入選怪談集(地方色豐かな)

特輯 映畫の正しい見方と常識讀本
映畫は既に萬人の必需品となつた。近代生活から映畫を取り除くことはもはや不可能である。この特輯は更にあなたの映畫に對する知識を深めるでせう。ともあれ一度書店で手にとつて御覽下さい。その美しさはあなたを捕へて離さないのです！夢のやうな思ひ出の名畫物語り。
名映画物語
▽映畫についての思ひ出の名畫!……菊池寛
▽映畫は爲になるか……映畫事情研究會
▽西洋の友達(映畫入門)……室生犀星
▽その他 映畫入門(正しい見方と常識)……飯島正・岸田國士・南部圭之助・大宅壯一・鹿島孝二・尾崎士郎

わが家庭に要求す
家庭の平和(卷頭論文)三宅正太郎
家庭へ要求す
主人より……安部磯雄
夫より……小島政二郎
母より……與謝野晶子
子を持つ母より……小寺菊子
若き妻より……眞木田不二子
娘より……平田萩子
女學生より……物部美津子
大學生より……西村朝太郎

夏姿を美しくする工夫
洋裝指導……メイ・牛山
▽むづかしい夏の洋裝
▽洋裝にふさはしい皮膚の焦し方
▽背中まで汗を滲ませない工夫
▽焦げたくない方の皮膚の手入れ
▽夏の外出と汗除けの用意
▽洋裝美に望ましい江戸子氣質
▽薄物の下着の巧みな着方
洋裝なさるならこれだけの御注意を
和裝指導……芝山みよか
▽涼しさは髮の手入れから
▽涼しさうな髮の形
▽髮かざり
▽涼しい氣附
▽長襦袢の着方
▽麻、明石、手細の着方
▽半襟、足袋、履物
▽涼しく見える帯の結び方

小唄の喜代三 半生の手記 悲しき出世
情熱の風薫る南國に生れ、今や妖艶な民謡の唄ひ手として全日本を風靡する小唄の喜代三が自からの手で描き出した情炎の半生記。共に縄船に横はつた戀人同志は共に出世し、名を擧げた。そして二人の出世は人生の旅路の終り、二人の悲しい別れだつた……
本名 今村たね

定價五〇錢
東京・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發行 (振替東京二三〇三番)

朝鮮農地令槪論

經濟的根據와法律的解釋

(九) 辯護士 李在元

二、小作料의減免

農作物은 氣候風土의關係로 凶豊의不常함으로因하야 所謂三災(旱、水、雹)의害를當하는일이頻有하다。그래서이러한境遇에는 小作料의輕減免除를하는것이古來로 一般의慣行이다。그러나從來의 法律上으로는이에關한規定이 퍽不完全하얏스니 民法에依하면 不可抗力으로因하야 收益보다 少한收益을 어든때는 其收益額에至하기까지 借賃의 減額을 請求할수잇다(第六〇九條) 卽小作料減免을請求할수잇지만 收穫이잇서도減額請求가 不能할뿐아니라 小作料보다收穫이 적엇서도 收穫된것만은 納付하지안호면안된다。이러케 收穫한것을 全部地主에게 納付하면 殘餘의小作料는 免除되기는하나 그러나 凶年에는 떠지안코 小作人이 生活할수잇서야한다 이엇지小作人의 人間的生存을 無視하는것이아니냐。

凶作減免의慣習이實際에 一般으로行하기도하지만 民法의規定이이러케 不合理하기때문에 慾心만흔地主는 이것을惡用하기쉽고도이 規定은慣行以外의場合에는 適用되지못하게되야自然 爭議의 發生이頻繁하게되엿다。故로農地令 第十六條에『不可抗力으로因하야 收穫高에顯著한減少가잇는때는 賃借人은 賃貸人에對하야 小作料의輕減又는免除를 申出할수잇다』고規定하고 미리이와相反한特約을하야 賃借人을 不利케하는것은 全然無效로 看做하게되얏다。(同令第六條) 이리하야 從來의 『不可抗力이라할지라도 減免을請求할수업다』는것과가튼 不當한 特約은 勿論、社會의公序良俗上 不當한方法을다하야도 減免할수업는境遇를 排除하얏는데 만일그減免의決定方法은 實際의慣習으로 定하기를 推奬하얏는데 만일地主와小作人間에 서로意見이相違되면 亦是 爭議를 解決할 解決은 어들수는업다。이러한 偏見에關한 必要한規定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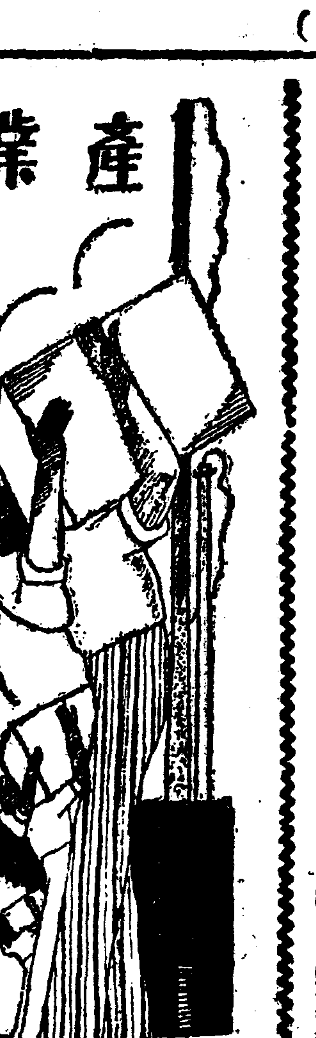
[illegible] 一部를 提供하야도 그受領을拒絶하고 [illegible] 小作人이 不利한 [illegible] 一部를 [illegible] (續)

産業

咸鏡南北高地의 緬羊飼育好成績

明年부터各道農會에兒羊配給

『홈스펀』도極히有望



北朝鮮開拓의 附帶事業으로着手한 緬羊飼育은 將來有望함에着目하야 種羊二千頭를 今春滿洲로부터 購入하고 目下北朝鮮開拓地區內에 千五百町步의牧場을 建設하고저 그用地買收 其他諸般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 現在의牧容地인 咸南北兩道의高地는 氣候風土가 緬羊飼育에好適한것과 飼育管理의適切로 그成績이 매우良好하야 벌서五十餘頭의 兒羊生産을 보앗는데 이狀態로나아가면 今年中에는 三百頭以上의增加를 보게되리라고한다 그리하야 明年度는 輸入後의最初生産兒羊을 各道農會에對하야 第一回配給을 行할計劃이라는데 最近個人經營의農場及牧場其他農家로서緬羊飼育을希望하는者가 이管理飼育等에關한 紹介로農林局에 書面及親히出頭하야 詳細히 係員의說明을 聽取하며 江原、咸安農場에는 滿洲國으로부터 百五十頭 咸南永興牧場에는 相當히多數의緬羊이 入荷되엇다하며 當局에서는 將來 全朝鮮的으로 普及하야 現在農家가 飼育하고잇는 豢鷄及畜牛와如히 五頭乃至十頭가량의程度로 飼育케하야 羊毛의增産을圖하는 同時에 『홈스펀』製造等 婦女子屋內 工業으로서도 普及獎勵할計劃이라는바且下北朝鮮地方에서는試驗的으로『홈스펀』機織를購入하야講習會를 열어 實施하고잇는데그成績이良好하야特히 朝鮮人婦女子에게 最適한機業이며또 相當한優良品의生産을 보고잇서그將來를期待하게되엇는데 數年內로『홈스펀』의 周衣次가市場에出現케되리라고한다

軍需工業活況

全世界를휩싸고

國際聯盟 經濟部의 報告에依하면今年一月부터 四月까지의重要商品의 世界生産은顯著한增加를示하고잇는바 就中鐵鋼鐵의增加率이 顯著하야世界를휩쓰는 軍需工業의 景氣를말한다

重要商品은 石油를除하고모다一九二七年부터 一九二九年에達한水準에는아직 達하지못하얏스나 漸次로이에 接近하고잇서前年度에對한 增加率及一九二八年同期를 一〇〇으로하는指數는如左하다

	前年同期에對한增加率	一九二八年에對한指數
石炭	一九%	九一
리그나이트	八	八三
銑鐵	五四	六八
鋼鐵	五五	七六
亞鉛	三四	七三

石油 一二 一〇八

또工業生産에 對해서는거이各國에亘하야顯著한 增大로就中日本은前年同期에 對하야서는一〇%의增加이나 一九二八年에對한指數는 一三九를示하야最近日本의 軍需인플레及輸出新興工業의躍進이窺視된다

	前年同期比較增加率	一九二八年基準指數
日本	一〇%	一三九
英國	一五	一〇三
米國	二九	七六
獨逸	二九	八六
加奈陀	四〇	七八
墺地利	一五	六九
洪牙利	二三	九一
波蘭	二五	六五
瑞典	二一	一〇六

그리고 今年四月의世界貿易의金價額은 輸入九億四千三百萬金弗에對하야 輸出八億五千萬金弗을示하야 前年同月에比하야 輸入에잇서千二百萬金弗의減少 輸出에잇서二千七百萬金弗의增加로되어잇다

慶南酒造組合

創立總會終了

【釜山】 財務課廢止로因하야 其管下에잇든慶南道內朝鮮酒造組合聯合會는 其當時解散을하엿든바 今般새로이 稅務監督局과 稅務署의設置되엿슴으로 釜山稅務署管下의釜山、東萊、梁山의 各釀造業者를 統合하야朝鮮酒造組合을創立코자 七日正午부터釜山公會堂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엿다는데 十三個所의釜山稅務署管内立會下에無難히 同組合은 創設되엿는바初代組合長은 釜山鎭文吾氏가被選되엿다한다

이어서 臨時總會를開催하고 組合細則에들어가 販賣定價協定統一案을討議한바잇섯다한다

第三種所得稅

그要旨와所得의申告 (三)

京城稅務監督局稅務部長 談

一一、『家族扶養費의控除』는所得合計에서 勤勞所得의控除를減한 所得額이三千圓以下이고 今年七月一日現在의同居의 戶主家族中에 年齡十八歲未滿又는六十歲以上의者又는不具廢疾者가 잇는때는此等의者의 扶養費는所得者의控除申請에 依하야控除됨으로그控除額을記載한다 그리고同居者가잇는境遇는 其控除額은所得者의希望에따라누구의所得에서거나(一人에게서나數人에게서나)控除됨으로控除하야주기를바라는所得者마다其金額을 記載하면조타

一二、『生命保險料의控除』는所得者가 自己又는家族과그相續人을 保險金受取人으로하는生命保險契約을爲하야 拂込한保險料는 其所得者의申請에依하야 控除하기로되어잇슴으로 前年中의拂込保險料(保險契約에因한 利益配當을減하고 拂込한내는利益配當을減하지안흔金額)記載하는것이다 但 控除額은契約者마다二百圓까지이다 郵便年金의掛込金은 生命保險料控除에準하야控除된다

十三、『差引所得金額』은所得額에서 勤勞所得의控除扶養家族에對한 扶養費의控除及生命保險料의 控除를減한金額이다

一四、扶養家族에對한 扶養費의控除申請書는 聾者、啞者、盲者、心神喪失者等의 區別及其狀況을 記載한다。그控除額은 扶養家族一人에對하야所得總額(同居者의所得合算한金額)이千五百圓以下인때는 六十圓、千五百圓을超過하는때는 三十圓式이다

一五、生命保險料의控除申請書는餘老、終身、簡易、郵便年金等을記載한다

一六、第二種所得稅를課한所得에對하는控除申請書는今年分의第三種所得金額中에 所得稅法施行地、滿洲又는樺太의法令에依하야 第二種乙의 所得으로 所得稅를 課한所得이잇는境遇는 申請書를 提出한者에限하야總所得(勤勞所得控除以外의控除를하지안는所得)에對한其所得額의 比例를所得稅合 第三十六條의規定에依하야 算出한稅額에乘하야 計算한金額을 控除함으로控除를바드려는者는 申請書에이것을 記載할必要가잇다

總에所得의申告와는 關係가업스나同居家族의所得은 戶主의分과同時에決定하야 通知하며稅金은各各따로 納稅告知書를보낼터이다

工業現狀打診 (二)

大規模企業組織五百五十餘

五人以上職工의小工場四千

釜山地方

(釜山商工會議所報告)

工産總額三億圓

第一項 釜山府內의工業分布와現況槪要

一、釜山府內工業分布狀態는아즉工業地域의 一定이업서 府內全面的으로서 集團的이아니나 現狀은 海陸交通의便、地價其他의 工場經營條件을 具備한地域에 集結되어 있는데 여기는造船鐵工業、窯業陶器會社、再製鹽工場其他大小工場이存在하고 釜山鎭方面에는 紡績、精米、고무等의 工場이잇고 草業方面에는 製材、精鎔、織物車輛等의 工場이잇다 모다各地域에 集團的傾向이엇스나 但 中小精米、工場、釀造其他小規模經營의것은大槪府內에 散在되어잇다

如上의 分布狀態는如實히釜山의 工業發達過程과 釜山市街膨脹과의 因果關係를示하는것으로將來도 大工場의設置는府內의中心을避하야 郊外로發展될것이 勿論이라한다

二、釜山工業의現況을보면主要工業에就하야서는如左한狀態이다

釀造業 은釜山工業中 가장오랜 歷史를 가잇는 重要産業으로서 明治十二年酒醬釀造를 試한것이嚆矢이오 其後 十一年一月에는 朝鮮紡織株式會社의 操業開始로 보다쑤經上相當한 苦心努力의結果此等製品은 日本內地移入品에 對抗하야 全朝鮮에 且하야 需要를獲하고 滿洲國及中國에도輸出되여 朝鮮의重要生産品인地位를占하얏다 昭和六年의生産高는 四百四十二萬圓、工場從業者男五八六八人女一、三三八人計一、八二四人인데 日本內地人은僅히三七人에不過하고 其他는朝鮮人從業者이다 (續)

精米業 은그沿革이오래어明治二十五年에는 釜山精米所가設立되어 當初 米穀輸出港으로서 府內 白米小賣業者를 倂하야 現在精米業者는 三十六을算하고 少數의業者를除하고 大部分은米穀移出業者의 兼營에屬하야 生産高가約七十八萬石、米糠等副産物을 合算하면 價格이 千百八十萬圓에 達한다

織物製造業 은從來釜山에서 略干의 家庭工業이잇슴에不過하얏슬뿐이고 大正二年에 恩賜授産紡織傳習所가 設置되어 六年五月高瀬合名會社가 授産目的으로 機業所를 開設하얏는바 釜山의新興工業 [illegible]

矢로 現在精穀、精米、醬油味噌等을合하야 五十二工場生産高二百六萬四千圓에達하나 從來醸造業은 相當한數入이잇섯스나 近來工場設備의改善及技術의進步等으로 生産增加와品質이 向上되어잇서 日本內地移入品에對抗할地位에잇서 [illegible]

探偵小說

艷魔 (43)

徐東山 作 / 金奎澤 畵

참극(慘劇) (二)

『어데시 대지 아니 할테야?』

영호는 재촉하엿다。그리고 타일느듯이 설명을하엿다。

『인제 나하고 갓치 가보면 알겟지만 나는 되려 그노인의 도움이 되지언정 해롤끼칠사람이 아니니까 염녀말어요』

무엇인지 혼자서 까막까막 생각하고 안저잇든 주먹코가 각작이

『선생님 그러면 탐정……이심니까?』

하고 뭇는다。

영호는 싱그레니 우섯다

『그러타고 할수도잇고 그러찬타고할수도 잇지만……그러나내직업이 탐정은 아니니까……취미로 하는 작난이지』

주먹코는 멍실멍실 웃는다

『그러시다면 대 드리지요。이 솜도밧 홍천사 드리가는 바른편 외딴집에서 맛나기로 햇슴니다。』

『옹……틀님업지?』

『네』

『그러면 다들 도라가……그러고 다시는 이런숭내는 내지말어야해……그러고 어데 가서누구한테든지 이런 이야기를해서는 아돼……만일 발설하면 [illegible]』

어제밤에 그 달은임파가 그여자와 협수룩한 사나이를잡어가는것을 그러면 노인이 목도 하엿나? 그러고 그것이 영호 자긔로 아랏는가?

그러나 그장면을 목도햇다면 그는 어떠케해서든지 그뒤를 따러갓슬터이니까 달은 일파의 소굴을 발견햇슬것이 니 그것이 영호의 소행으로 알게되지는 아니할것이아닌가

그러타면 분명 어제밤에 그야단이 끗난뒤에 그도 근처잇다가 영호가 나오는 뒤를밟엇든지 오늘아침에 오복이가 집으로 옴나오는것을 뒤를밟벗슬에 틀림업는것이다。

오늘아침 그가 상준이에게 뒤를 밟힌것은 그가임이 오복의 뒤를밟어 영호의 집을 알어가지고 또하번 익선동그집을 들너나온때다

이러케 생각하고야 영호는 비로소 사실을 리해할수가잇섯다。

영호는 종묘압해서 가회사 엽해과 작별하고 상준이가잇는곳으로 갓다。

근처에 오복이의 자동차가 잇는가 둘너보앗스나 아모데도보이지 아니하엿다。

역시 오늘나제 영호의 준승동이를 바터가지고퐁을새우느라고 똑분서주하는니라생각하니 영호는 되려 오복이가 엽서웟다。

상춘이는 넘우 속을조이고 서다렷다는듯이 보고를한다

『엽한시까 좀 못되어서 노인이 드러왓다가 이내 나가터니 한 십분후에 웜 약복쟁이하나가 드러왓다』

이것은 또한 뜻하지 아니 사실이다

영복쟁이러니 그는 그러면 누구일가?

노인이 어데서 자긔의집을 알어내엇스며 또 그보담도 어떠케 자긔가 그의딸과 젊은사람을 붓잡어왓다고 단정을 하엿는가 하는것이다。

영호는 한가지 궁금한것은 그서도 차에타고 내려가면 동쟁가 노려잇다。

영호는 그중이 자동차를 문하고 갓치 적을 나섯다。

과연 운전수가 졸고잇는 자가 맛게 기다려두엇슬것을 생각 하고 [illegible]

그다지 흉이 내지아니하는모 조르나 담은 두사람은 오늘밤 단단히 혼이나서 그렇지 양이다

『인제는 어떤 일이 잇서도 주먹코는 이러케 열심으로 도아니한다고도 아니하고 꽉꽉 엄치고 [illegible]』

미상불 쏨모가 잇슬직도 하여보엿다

이러케 길을 드려노코보니 큰일도 우섯다。

영호는 실소를 하엿다 그 꾀정에와서 『노르돌푸르러면 다……안됩니다』

『네네……그저 아무심부림이 라도……종로서정목 ××양 첫슴니다……』

영호는 똑갈네 거절하는이 보듬 그때두는것이 나흘것가 텃다。

『가서들 잇게……일이잇스면 운뜻이 영호의 눈치를 살핀다。

주먹코는 무렴해서 얼골이 붉어진다 그러면서도 미련저 한 얼굴하는 거경이 좋음 심 부탁을 석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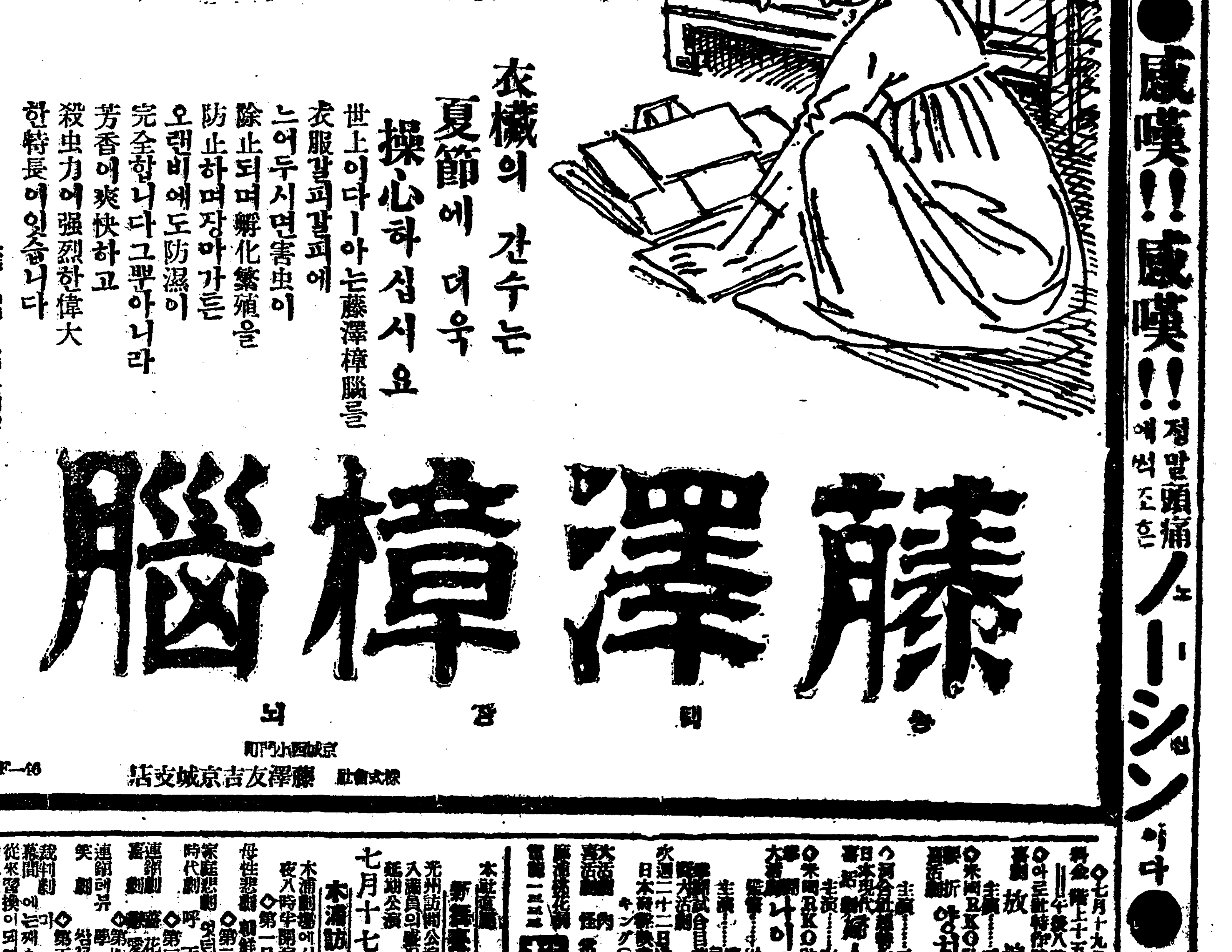
『꼭한번 꼭 쥐어주엇다고 매 제여요 그러나。』

영호는 그뜻을 업는 양이 주의하여 주섯스면……저 여종 『저……저 [illegible]』

모가 주울주을하다가 계우 [illegible]

키다리와 키작은 두사람은 선선히 나가고하는데 주먹 세사람은 모가 망에잣드록 허가서 거울 웃으니까』

서여지는 지내놓이 잇을 장 [illegible]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석 조흔 ノーシン이다●

◇七月十九日午前十時一回 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아르社特作映畵 喜劇 放浪者 全二卷
◇米國RKO社特作映畵 喜劇 放浪者
主演… 베티… 인스드로
◇米國RKO社特作映畵 全六卷 활극 엉터리 차기 뽀·피
◇日本現代劇 主演… 마프노도 [illegible]
◇美國RKO社特作映畵 主演… 쁘레도까 [illegible]
新派 婦人과拳鬪 六卷
日活 大活劇 나이트 進軍 全七卷
次週二十二日晝부터 日本帝國映畵現代劇 キング(大王) 喜劇
大活劇 怪肉 [illegible]
電話 一三二三 朝鮮劇場

本社主催 新舞臺南鮮巡演
光州訪問公演을連夜正副滿大入滿員의盛況으로十六日까지延期公演
七月十七日밤부터 木浦訪問大公演
木浦劇場에서 新舞臺全巡業終了
夜八時半開演
◇第一日프로
母性悲劇 朝鮮의어머니 全四幕
◇第二日프로
家庭悲劇 엇던 女子의一生 二幕
時代劇 呼! 天 悲 魂 二幕
◇第三日프로
連鎖劇 薔花紅蓮傳 三幕
喜劇 愛忘 想 曲 二幕
◇第四日프로
連鎖劇 學生街 十二場
笑劇 쌈갖에 猶드력 一幕
◇第五日프로
裁判劇 가 마 [illegible] 四幕
幕間에는 재즈 뺀드 獨唱 X 쌘스 주
從來習慣이되어잇는公演初日入力車或은自動車로俳優一同의町廻는絕對廢止합니다
新築中 團成社
(電光九五九)

京城日報社主催 七月十九日大公開
期傑作優秀映畫の觀賞週間
1M、C、M社超弩級日本版
監督エドマンドグールディング 主演グレタガルボ ジョンバリモア 其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グランド、ホテル 拾貳卷
メトロが誇る七大花形スターの
鏡演
七人の主役が築く劃期的名篇
2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監督マリオンゲーリング 主演シルビアシドニイ
ジェニーの一生 拾壹卷
3獨逸ウファ社超特作日本版 シドニイ映畫中の傑作白眉篇
監督ハンス、シュワルツ 主演テンス、アルバーアンナス
狂亂のモンテカルロ 拾卷
次週公開 音樂映畫の最高峯!! ▲會議は踊る。 ▲雨の哀愁
明治町一 電本 二五 浪花館

七月十八日낮부터三日間 三大特撰名畫大公開
毎日二回 낮一時 밤八時十五分始映
料金 大衆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RKO社特作品 喜劇 스켓트 全篇
世界的名餘차리차프링氏力演合니가참으로질겁名喜劇이올시다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時代劇 鞍馬天狗 全八卷
高田浩吉、阪東好太郞、尾上榮五郞主演이거야말로우숨거리의時代名篇을보아두시라!
RKO社超特作品 世界的名作品 마 루 가 全八卷
帝王篇이올시다、꼭한번보아두시라참으로실만한映畵이올시다
鐘路四丁目 電光一二五一 第一劇場

讀者利用欄

謹告

平壤支局 移轉位置
平壤府巡營里一〇三
(前位置越便下向二次)
(二層煉瓦家)
電話一六一五番

피아노 獨逸製一臺를급히사실분은下記住所로來見하옵소서 市內社稷洞二三ノ二番地金慈惠

求書 最近發刊의六法全書와민사소송法全集을讀求하오니 下記住所로 速히通知하시요 平北寧邊邑內 明庭植

求書 嵩스트도이 文學全集과 島武郞文學全集을 有하실분 讀求하오니 左記住所로通知하시요 京畿道利川郡利川面官庫里三〇 任濟宰

鐵製 藥瓶瓶의 附屬品一式과 中古品自轉車를 放價로 팔겟음 京城府竹添町三丁目 一番地 權甫鉉

醫師 求함니다 同業으로 醫院經營할醫師를 新義州市內로 求함니다 書信又는面接으로 上記地에分事務所에 문의하시오 美烱玉

ヴイクトロラ 手提蓄音器 新品이잇사오니 가지실분은 午前九時부터午後八時에 左記住所로 問議하시압 京城府 武橋町二三 李海仲

雜貨 御商用錦鍍卷左記住所로보내주시기를바라나이다 小才定州郡古德面雲峰洞 韓基周秦

求宿 安靜洞、光化門通、西大門附近工夫하기조흔 一間房 市內桂洞六二ノ一號 韓性三

유모 식모 [illegible] 구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본사 광고부로 조회하시오